

■광주시장 후보에 듣는다 진보신당 윤난실

“일자리·교육·교통 등 ‘복지혁명’ 추진”

-민주당 텃밭이었던 호남지역의 기류가 달라졌다. 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역 분위기를 어떻게 보나.

▲민주당 경선 후유증이 심각하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2년에도 후보 등록 하루 전, 광주시장 후보가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20년 동안 ‘정치 독식’을 해왔다.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모두 민주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민주당주의는 실증된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광주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광주가 살고, 광주의 정치·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윤난실은 누구

강진 출신으로,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사무차장, 진보신당 중앙당 부대표 등을 지냈고 현재 진보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광주 시의회에 입성, 대중교통개선 특별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시내버스 회사의 구조조정 및 운송자료의 투명성 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시선집중 광주’의 진행자를 맡기도 했다.

■윤난실 신상 메모

출생	강진
본관	해남(海南)
신체	키 158cm/52kg
학력	광주교육대 3년 무기정학 (전두환 정권의 군사교육 반대·민주화 운동 유공자 인정)
주요경력	전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시선집중’ 진행자 전 제대대 광주시의회 의원(대중교통개선 특별위원장) 전 진보신당 중앙당 부대표 전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사무차장 현 광주여성단체연합 지도위원 현 진보신당 광주시당 위원장
가족	남편과 1남
종교	기독교
취미	독서·영화감상
최우명	한결같이, 덩달하게
애창곡	필레꽃
솔매 가족들과 하는 일	산책·요리
남편에게 주로 하는 말	“길로 아빠 고이워요”
자녀들에게 주로 하는 말은	“길로아 고이워, 사랑해”
좋아하는 연예인	배우 문소리(연기도 잘하지만 늘 사회 환여하는 모습이 좋다)
좋아하는 음식	생선 요리
좋아하는 여행지	바다·섬
가장 아끼는 소장품	책
별명	광주일꾼(光州一團)
저서 혹은 논문	‘윤난실의 진보콘서트’ ‘아름다운 왕따들’
존경하는 인물	전태일, 유한봉
주량·흡연	맥주 1,000cc
홈페이지	gwangju.newjinnbo.org
블로그	blog.naver.com/nansil11
이메일 주소	kjminju11@hanmail.net

-민주당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동의한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득표율은 51%, 2006년은 47%다. ‘절반 이상’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민주당 심판’을 원하고 있는 시민이 절반 이상이라는 얘기가. 하지만, 지난 2002년 민주노동당의 득표율은 14% 수준이다. 당시에는 반 민주당 정서를 수렴할 진보정당도 후보도 없었다. 2006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쏠림현상이 심했다. 진보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 시민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는 달라졌다.

-진보신당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더이상 민주당은 안된다’는 시민들이 많지만 ‘그럼 어디가 좋을까’라는 질문에는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지역민들 정서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승리할 수 있다.

-반(反)민주당 연대를 촉구했는데, 언제쯤 가시적 성과가 나오나.

▲후보등록일인 13일까지는 성사시켜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게 절대 진리다. 최소한 ‘시의원 선거’에서는 반 민주당 연대가 성사돼 민주당 심판에 나서야 한다. 시장 후보 단일화의 경우 민주당이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참여당도 정찬용 후보가 입당한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과의 단일화도 더 지켜봐야 하지만, 실질적인 비민주 세력의 단일화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남은 한 달 동안 선거운동에 임하는 전략이 있다면.

▲쓸 수 있는 전략이 솔직히 많지 않다. 하지만 진정성을 갖춘 후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MB정부 심판’ 등 중앙정치와 연계해 1회성으로 출마했다가 광주를 떠나곤 하는 인사들과는 다르다. 지역에서, 지금껏 지역민들과 함께하며, 누구보다 지역 정서를 잘 알고 있다. 진보세력이 추구하는 ‘다른 가치’를 선명하게 보여드리면 시민들이 올바른 평가를 내릴 것이다.

-시민들이 ‘다른 가치’로 평가할만한 공약 또는 정책을 말해달라.

▲올해는 광주민중항쟁이 30주년이 되는 해다. 광주는 80년 이후 국내 ‘민주화’의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한국의 민주화는 광주시민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제 ‘새로운 30년’을 맞이하는 광주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밑그림을 그릴 세력, 인재를 키워 일자

조선대 시립대 전환·공교육 혁신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도 실시

절대권력은 부패하게 절대진리 13일까지 ‘반 민주당’ 연대 성사

리와 교육, 교통 혁명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혁명’을 이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광주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광주공항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국내선은 존치해야 한다.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서울 가려고 무안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하다. 공항 활성화는 시민 불편이 없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군사 공항 문제는 국방부와 담판을 지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복지 혁명’은 자치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교육 혁명의 주된 내용은 조선대의 시립대 전환과 ‘공교육 혁신학교’의 설립이다. 교통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철도 및 시내버스의 완전 공영제 실시다. 일자리혁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광주시의 직접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미 공약의 실현 가능성, 재정정책 등을 구체화했다.

-구체적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방안도 담겨있다.

▲당연하다. 예산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약에서 제외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현재 광주시 예산의 10%를 절약하고, 미납중인 지방세를 거둬들이면서 동시에 낭비 사업 예산을 줄이면 충분하다. 조선대 문제의 경우 의외로 쉽고 선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 등록금을 전년대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비용으로 3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버스 공영제 문제도 비수익 노선을 공영제로 돌리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인천시 서구 경서동 신세계장례식장에 마련된 금양98호 희생자 빈소에서 2일 오후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양호 희생자 5일간 수협장으로

의사자 예우 6일 발인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침몰한 금양98호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식이 수협장으로 엄수된다.

금양98호 실종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사망 선원 2명과 실종선원 7명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마련된 인천시 신세계장례식장에서 2일 오전 9시부터 조문객을 맞았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와 금양호 희생자들

합당하게 예우한다는 방침에 합의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날부터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발인식은 6일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앞서 금양호 희생자를 합당하게 예우한다는 방침 아래 ▲의사자(義死者)에 준하는 예우 ▲위령비 건립 ▲사후 추서 ▲장례비 정부 부담 등을 실종자 가족에게 약속했다. 이를 위해 14일까지 의사자 신청을 한 2명에 대해 의사자 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천안함 CCTV 영상 복원 총력”

합조단 “함정 통로 등 5~6곳 설치...중요한 단서 제공할 것”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 중인 민·군 합동 조사단 과학수사팀은 천안함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복원하는 데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일 “합조단 과학수사팀에서 천안함에 설치된 CCTV를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CCTV에는 천안함 침몰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CCTV는 함정 통로와 탄약고 등 천안함의 주요 시설 5~6곳에 설치되어 있다”면서 “영상이 복원된다면 폭발 당시 함정의 모습을 비롯한 사고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상황실 근무자가 함정 내부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년 천안함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CCTV 보안업체의 한 전문가는 “함정에 설치된 CCTV는 육상의 것과 달리 일부 방수 기능이 있다”면서 “최근 복원 기술의 발달로 바닷물에 침수됐더라도 영상 복원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CTV는 자동녹화 기능이 있으며 보통 1~2개월씩 영상을 압축 저장할 수 있다”면서 “전원이 끊길 때까지의 영상은 자동 녹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조단은 국내 기술로 CCTV 영상을 복원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은 가스터빈식 좌현 하단부 수중에서 어뢰로 추정되는 수중무기에 의한 ‘비접촉 폭발’로 발생한 버블제트에 의해 두 동강 나면서 침몰했다고 합조단은 잠정 결론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6.2 선거 (예비)후보자 필독!!
후보자 (예비)후보자 검색
이젠!! 휴대전화로 하세요!!
휴대폰 3654+무선인터넷 키
SHOW NATE
02-2677-7116



대한민국 CEO 2000명의 스승 「전성철 박사 광주특강」

아시아 시대와 한국 중소기업의 비전



IGM 자문위원 전성철 박사 무료특별강연

일 : 5월 10일 (화) 19:00~21:00

장소 : 전남대학교 대강당

주최 : IGM 광주지부

문의 : 02-2677-7116

IGM 자문위원 주요 사항

IGM은 중소기업의 경영, 마케팅, 인사, 재무, 법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은 종합 컨설팅 기관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igk.or.kr